

石村洞四號墳 住居址出土 百濟土器類

裴 基 同*

石村洞四號墳은 1974年 서울大博物館과 考古學科가 共同으로 主管·發掘한 百濟初期에 屬하는 基壇式積石塚이다. 古墳의 發掘結果에 對해서는 1975年 報告書로 刊行된바 있다(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6冊) 發掘結果 古墳은 다른 高句麗積石塚과 마찬가지로 盜掘이 甚하여 빈약한 遺物만이 수습되었다. 四號墳 發掘時 第二段 東側끝에서 靑灰色軟質土器片과 表面에 黑色을 한 꺼풀 입힌 類似黑陶片, 第三段에서 끌려 내려온 靑灰色軟質 百濟瓦片等이 多量 수습되었다(同報告書 本文 21페이지)

그런데 古墳區域以外에 古墳의 東南方略 21m 지점에서 東西 3.6m, 南北 3.2m의 거의 正方形에 가까운 抹角方形의 住居址가 發見되어 相當量의 土器破片이 出土되었다. 여기에서 出土된 土器破片을 整理한 結果 都合 5個의 土器가 復原되었고 形態上 瓦當과 類似한 異形土器가 確認되었는데 이 時期의 土器資料가 많지않고 異形土器는 그 現在까지 類例가 없는 것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短頸臺(圖 1, 圖版 1)

현존 높이 9.2cm인데 底部가 완전히 없다. 底部에 가까운 器腹下部의 모양으로 보아 平底로 생각되는데 대단히 곱고 정선된 胎土로 만들어 졌으며 表面은 磨研된 것인지 윤기가 나고 있다. 軟質에 屬하며 直立 頸部는 짧고 扁部에는 二條線이 이루는 施文區內에 不規則한 斜線格子文을 施文하였는데 이것은 樂浪等에서 出土되는 中國漢式土器의 影響으로 評價하고 있다(小田富士雄, 1979 百濟の土器) 器腹의 中央部에서는 中央의 것이 제일 도드라지고 上下 1條씩 都合 3條의 突起를 가지고 있다.

腹徑 15.0cm, 口徑 8.0cm

(2) 短頸臺(圖 2)

灰色軟質로 胎土에는 石英粒의 混入이 보인다. 물레로 成型한 後에 器腹의 中下部에는 打捺文을 不規則하게 施文하였고 内外모두 成型후에 슬립을 씌우듯 물손질을 加한 흔적이 보인다. 口頸部는 直立으로 짧으며 몸통은 塔圓형이다. 底部는 약간 들림바닥을 이루고 있고 이와 비슷한 형태의 土器가 石村洞과 芳夷洞에서 出土된 例가 있다.

높이 24.6cm, 徑腹徑 32.1cm, 口徑 13.6cm

*서울大學校 博物館 學藝士

(3) 灰色軟質短頸臺(圖 3)

대단히 정선된 胎土로 빚은 것으로 瓦質에 가까운 軟質土器이다. 짧은 頸部는 약간 外反되고 있으며 거의 球形에 가까운 器形으로 底部는 (2)項의 短頸臺와 마찬가지로 圓底의 들림바닥인데 下半部에는 格子打奈文이 施文되었다. 扁部에 陰刻으로 2條의 線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九宜洞에서 出土된 土器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注目된다.

높이 15.2cm, 腹徑 17.6cm, 口徑 8.6cm

(4) 圓底臺(圖 4)

黑灰色調로 대단히 정선된 胎土를 사용하였다. 表面에 윤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黑色磨研土器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三國時代 硬質土器에 屬하는 것으로 燒成度가 相當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거의 球形에 가까운 타원형이며 器腹은 無文인데 底部부근에는 打奈文의 痕跡이 있다. 底部는 完全히 圓底로 되어 있고 外反한 口緣部는 二重口緣으로 되어 있다.

높이 19.3cm, 腹徑 20.8cm, 口徑 12.5cm

(5) 廣口臺(圖 5)

同一한 形態가 地表採集品으로서 報告된 바 있다. 口徑이 器腹徑과 크기가 비슷하며 外反 頸部를 갖고 있다. 底部는 들림바닥이다. 灰色硬質로 胎土엔 石英粒이 混入되어 있으며 成形後에 內部에 손질을 加한 痕跡이 있다.

높이 21.6cm, 腹徑 17.9cm, 口徑 1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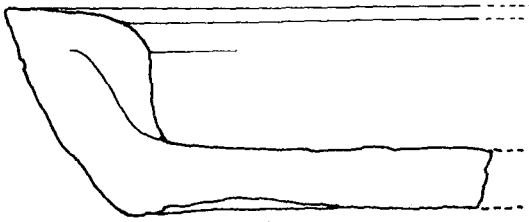
(6) 瓦當形土器(圖 6 圖版 2)

현재 3분지 1정도 破損된 것인데 完形의 復原이 可能하다. 瓦當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瓦當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瓦當과 비슷한 모양이어서 우선 名稱을 瓦當形土器로 하였다. 고운 粘土로 빚은 것으로 아주 고운 砂粒이 混入되어 있으며 灰白色의 瓦質이다. 前面은 瓦當의 周緣처럼 생겼으며 內區에는 陽刻으로 아주 정돈된 기하문양이 있다. 說明의 便宜上 瓦當의 名稱을 利用한다면 內區는 圖緣에 해당되는 部分보다도 약 1.5cm정도 낮다. 周緣의 形態는 1.5cm程度의 두께로 약간 外反된 모양을 하고 있으며 表面이 고르지 못하다.

內區의 施文面에는 陽刻으로 기하문을 施文하였는데 內區는 10cm의 正圓이다. 일변 1.6cm의 정방형을 中心으로 0.4cm 굵기를 가진 線으로 각각 직각의 중심각을 가지도록 四等分하였다. 四等分線의 四端에는 亦是 0.4cm의 굵기의 線을 이와 直交시켜 十字文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四等分된 各 區劃內에는 또다시 중심에 0.8cm의 正方形을 두고 徑 3.2cm의 圓을 亦是 0.4cm의 幅을 가진 線으로 돌렸다. 그런데 施文된 文樣의 形態와 配置가 대단히 정확하고 정교한 面을 보이고 있다. 內區의 中心部는 磨耗에 依하여 文樣이 外廓보다 희미한 便이다.

그릇의 굽처럼 생긴 後面은 內部와 外部 모두 물손질한 자국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솟막새기와의
 서 볼 수 있는 圓筒形 이음새부분의 흔적이 전혀 없어서 기와종류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後面에
 內區에서도 成形的 마지막에 굽처럼 생긴 부분을 손으로 마감한 痕跡이 남아 있다. 그런데 前面의
 中心에 많은 痕跡等으로 그릇의 一種으로 볼 수 있으나 瓦當처럼 생긴 周緣이 두박하고 用途가
 不明이며 瓦當으로서의 成形的 方法이 根本적으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 土器以外 同一系統에 屬하는 文樣土器片이 있는데 圓을 四分하는 十字線의 끝에 直交하는 十
 字文이 아니고 「卍」形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破片이 너무 작아 全體復原은 힘든다. 또다른 破
 片 하나는 盤처럼 생긴데 器벽이 두텁고 外反한 器벽의 外部에는 2條의 線文이 口緣가까이에 돌리
 고 있다. (삽도) 四等分區域內에 있는 圓의 文樣도 「方形中心의 圓」이 아니고 圓內部를 또다시 中
 心角이 直角이 되도록 四等하고 있다. 이외에도 2
 ~3個의 破片이 더 있는데 워낙 작은 破片이어서
 全體의 復原이 어렵다.



〈삽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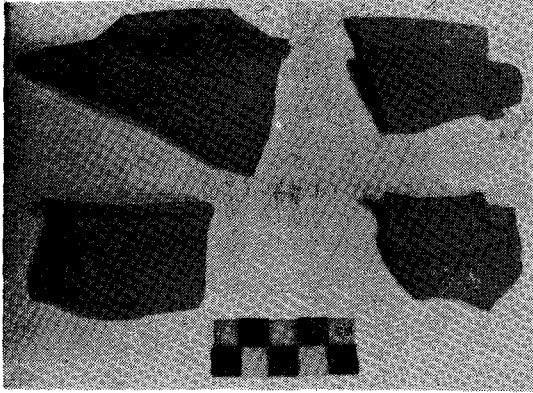
이러한 종류의 土器는 類例가 없는 初出의 것이
 어서 正體의 파악이 힘들고 漢式系統의 瓦當중에
 內區를 區分하여 施文 또는 文字를 配置한 것이
 있기는 하나 基本性格이 完全히 달라서 앞으로 同

種의 資料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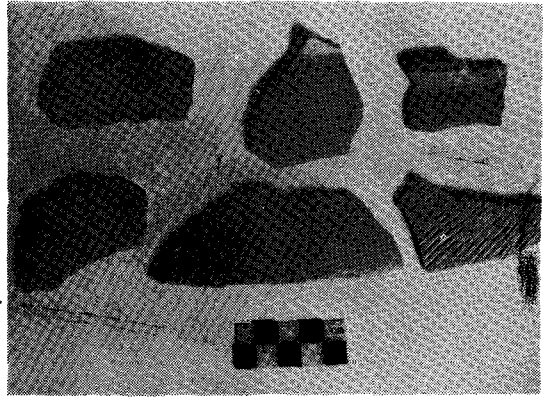
(7) 臺形土器口緣部破片(圖版 3,4)

以上の 土器類와 함께 出土된 것들로 軟質과 硬質이 混在하고 있으며 直立口緣을 가진 臺形土器
 破片중에 扁部以下の 器腹部가 急激히 減少하는 灰色硬質廣口臺가 있으며 綠釉가 남아 있는 小形의
 臺形土器破片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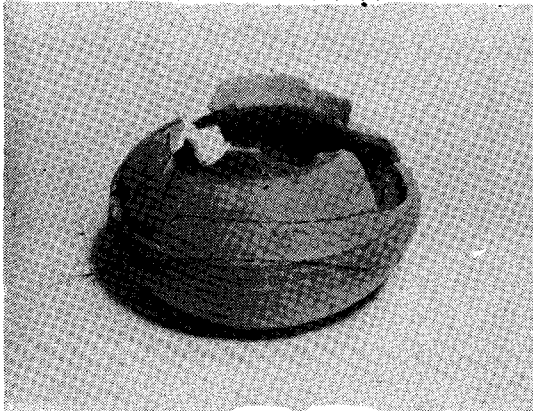
以上の 土器資料는 遺物出土가 最少하였던 石村洞古墳과 關係되는 것으로서 既往의 資料에 一添
 하고자 하는 것이며 異形의 文樣土器는 初出의 資料로 一但 소개해두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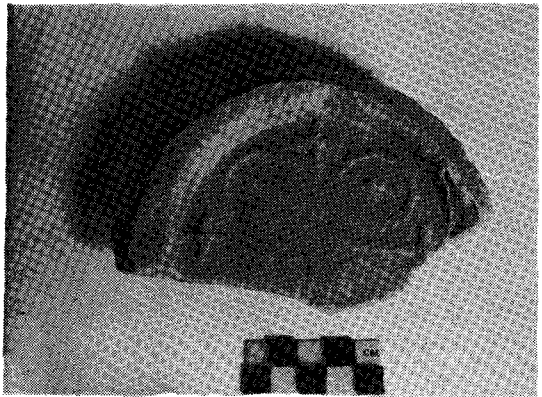
圖版 3. 土器緣部破片



圖版 4. 土器破片各種



圖版1. 短頸壺



圖版 2. 瓦當形上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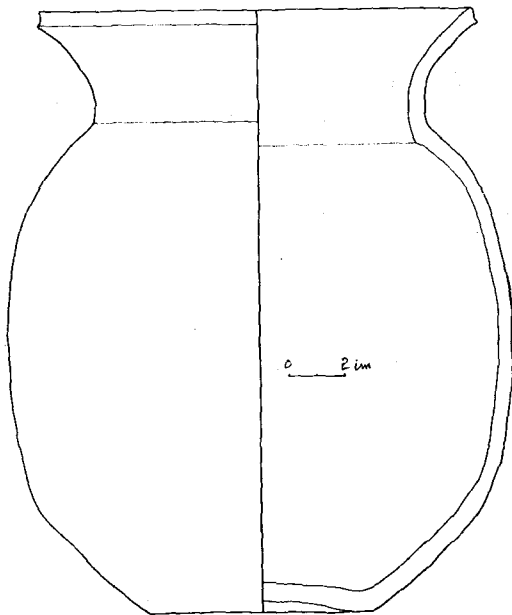


圖 5. 廣口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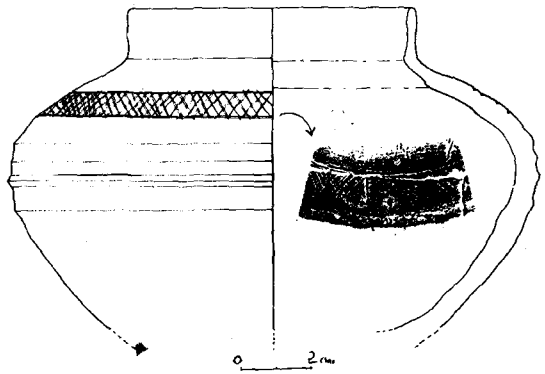


圖1. 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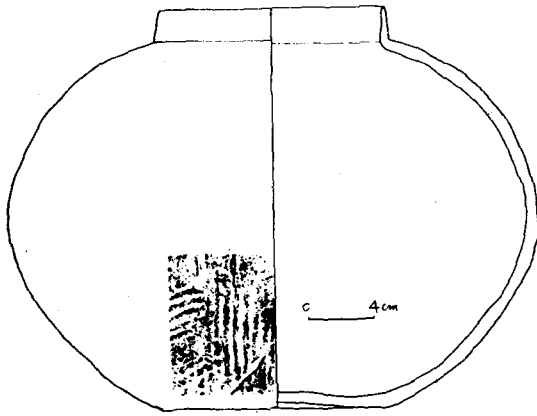


圖 2. 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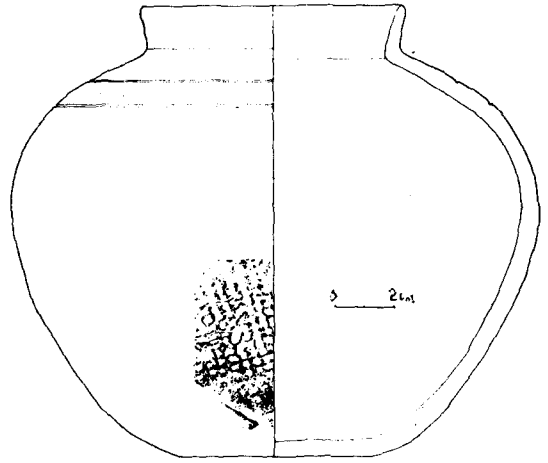


圖 3. 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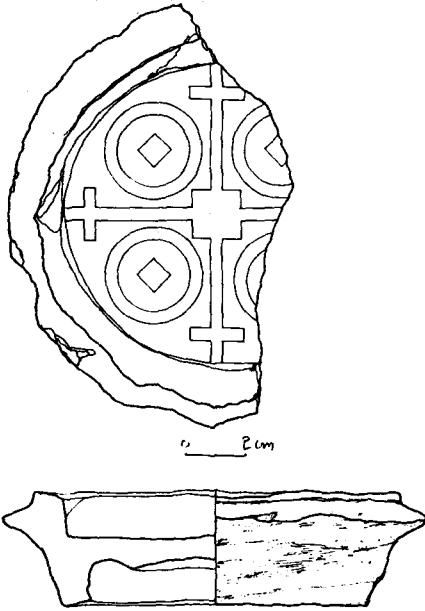


圖 6. 瓦當形土器片及斷面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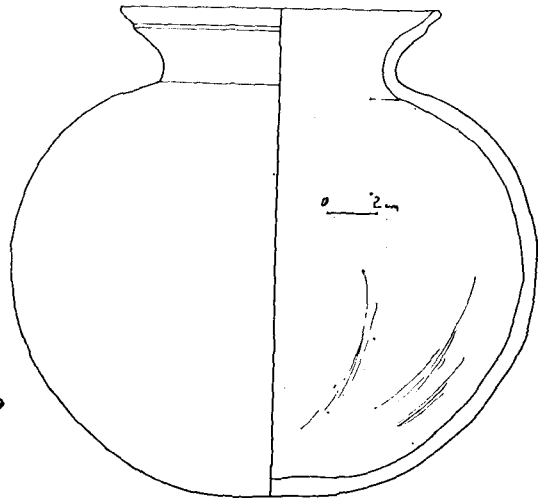


圖 4. 圓底壺